



[산업] SK E&S 미국 KCE 인수 "5년내 세계 1위로" 06



Economy

코스피	3114.70 (-48.29)	코스닥	1034.62 (-2.60)
금리 (미국 3년)	1.499 (+0.010)	환율 (원/달러)	1169.20 (+2.50) (9일)



### LNG K-조선비전 및 상생 협력 선포식

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거제시 삼성중공업에서 열린 K-조선 비전 및 상생 협력 선포식에서 가삼현 한국조선해양 사장(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회장), 이성근 대우조선해양 사장, 정진택 삼성중공업 사장 등 조선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 협약식 참석자들과 함께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뉴시스

## 文 “K-조선, 압도적 세계 1위 만들겠다”

‘K-조선 재도약 전략’ 선포 “10년 세계적 불황 딛고 향해 시작 친환경 선박 점유율 75%로 확대”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 1등 조선강국 달성을 위한 ‘K-조선 재도약 전략’을 선포했다.

문 대통령은 9일 오후 경남 거제 삼성중공업에서 열린 ‘K-조선 비전 및 상생 협력 선포식’에 참석해 “조선산업 재도약 전략”으로 우리 조선산업의 힘을 더욱 강하게 키워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세계 1위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관련기사 3면>

이날 문 대통령은 “우리는 올해 13년 만에 조선 최대 수주량을 달성했고, 세계 최고의 위상을 되찾았다. 10년 이상 계속된 세계 조선 시장 불황을 딛고 일어나 다시 힘찬 항해를 시작했다”며 친환경·스마트 선박 기술력 강화 및 관련 분야 일자리 확대와 생산성 향상,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 산업 생태계 구축

등을 약속했다. 조선업 부흥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지다.

조선 산업 재도약 전략으로 문 대통령은 ‘친환경·스마트 선박 기술력 강화’를 먼저 내세웠다. 이어 LNG 추진선과 같은 저탄소 핵심기술 고도화, 수소·암모니아를 연료로 활용한 무탄소 연료 운반선·추진선 기술 개발에 대해 약속하며 “현재 66% 친환경 세계 선박 세계시장 점유율을 2030년 75%까지 늘리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스마트 선박 개발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며 “2030년까지 세계 시장 점유율 50% 달성을 목표로 오는 12월부터 충돌 사고 방지, 최적 항로 결정, 고장 예측 진단이 가능한 자율운항 시스템을 개발해 시험 운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운·철강과 같은 조선 전후방 산업도 스마트화해 스마트쉽 데이터 플랫폼을 공동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친환경·스

마트 선박 수요 증가에 따른 ‘사람 투자 및 생산성 확대’ 차원에서 “올해 대량 수주한 선박을 건조하기 위해 내년부터 많은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며 “숙련된 기술을 가진 분들이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 조선산업 도약에 함께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2022년까지 조선 인력 8000명을 양성하고, 신규 인력 유입을 확대하겠다. 직업 훈련과 미래인력 양성센터 같은 체계적 인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생산기술을 디지털화하고, 제조공정을 자동화해 2030년까지 생산성을 30% 이상 높이겠다”고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산업 생태계 구축에 힘쓰겠다”며 중소기업, 기자재 업체가 독자적인 수주 역량을 갖추도록 마케팅·금융·수출·물류까지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 급변하는 코스피 시총... 플랫폼·2차전지株 뜬다

3위 네이버, 5위 카카오 약진 네이버, 2위 SK하이닉스 위협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글로벌 산업구조 재편에 따라 손바뀜이 활발하다. 플랫폼, 2차전지 등 떠오르는 업종과 지는 업종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상장과 동시에 시총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리는 기업도 이젠 특별하지 않은 상황이다.

가장 눈에 띈 변화는 플랫폼 기업이 자 언택트(비대면) 대주주인 네이버와 카카오의 약진이다.

9일 주식시장에서 네이버는 시총 3위, 카카오는 5위로 장을 마감했다. 올해 들어 네이버의 시총은 17조4940억

원, 카카오는 22조6988억원 증가했다. 지난 6월 카카오가 다음과의 합병 7년 만에 네이버를 제치고 시총 3위에 오르기도 했으나, 네이버가 다시 3위 자리를 되찾았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최근 금융당국의 규제도 금융상품 판매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와 정치권에서 플랫폼을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8일부터 2거래일간 주가가 하락하기도 했다.

김소혜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단기적으로 양사의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한다”며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의 투자와 대출·보험 관련 매출 비중은 미미한 상황이며, 당분간 정부 규제 관련 뉴스플로우에

따라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네이버는 올해 들어 주가가 55% 이상 상승하며, 시총 2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SK하이닉스의 자리를 넘보고 있다. 반도체 업황 둔화 우려에 주가 부진을 겪고 있는 SK하이닉스와 달리 네이버는 추가 상승 여지가 충분하다는 평가다.

현재 SK하이닉스와 네이버의 시총 규모는 9조4432억원 가량 차이가 난다. 증권업계에서는 네이버의 목표 주가로 55만원 수준을 제시했는데, 이 경우 네이버의 시총은 90조원을 넘기게 돼 SK하이닉스(74조9842억원)를 앞지르게 된다. <3면에 계속>

/박미경 기자 mikyung96@

### m-커버스토리

## 모병·지원병제 공약 환심 위한 국방정책

‘인기 의식’ 대선공약

대통령선거 예비후보들이 최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넷플릭스 드라마 ‘D.P.’를 의식한듯, 20대 청년들의 환심을 받기 위한 ‘국방정책’을 언급하고 있다. 한동안 잠잠해졌던 모병제 추진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히 여·야 대선 예비후보들이 전체적인 국방정책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기를 의식한 ‘모병제 추진’ 등을 언급하는 것에 대해 비판의 소리도 나온다. <관련기사 4면>

국민의 힘 대선 주자인 홍준표 의원은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모병제 전환을 검토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홍준표, ‘모병제’ 공약 내놔 “젊은이들, 징병 멍에 풀어야”

유승민 “디피보고 전환 주장 모병제 전환, 완전히 별개 문제”

“정치 지도자들, 군사정책보다 포퓰리즘·전시주의 정책 구상”

홍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D.P가) 픽션이지만 군내 가혹 행위가 아직도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젊은이들을 징병의 멍에에서 풀어줄 때가 됐다”고 분다”며 “일당백의 강군을 만들기 위해 모병제와 지원병제로 전환을 검토한다고 공약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같은 당의 대선 후보 경쟁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문재인 대통령이 판도라 영화 한 편을 보고 탈원전을 주장하더니, 홍준표 후보께서는 드라마 디피를 보고 모병제를 주장한다”며 “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꾸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국방정책을 포퓰리즘에 의해 결정지어서는 안된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렇지만, 유 전의원에 대해서도 군 일각에서는 정치적 포퓰리즘으로 군사정책을 추진한 것은 마찬가



넷플릭스 드라마 ‘D.P.’의 한 장면. /뉴시스

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유 전의원은 과거 자신의 지역구의 표를 의식해 ‘대구 공군 기지 이전’을 주장했으며 이것이 여론에 밀리는 군 기지이전 요구의 도화선이 됐기 때문이다.

최근 군 안팎에서는 군을 강하게 육성하면서 국민의 힘으로 통치해야 할 정치 지도자들이 ‘한국군의 약병화(弱兵化)’를 예방하고 정예강군으로 갈 거시적이고 세부적인 군사정책보다, 유행에 편승해 선심을 쓰는 ‘포퓰리즘’과 눈 앞에 바로 보이는 웅장하고 화려한 ‘전시주의’에 빠진 군사정책만 구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비단, 야당 후보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앞으로 다가온 ‘인구절벽’으로 인해 ‘숙련된 병력 자원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숙련된 병력자원 확보를 위해 예비전력 예산을 국방예산 대비 1%까지 올리겠다고 선언했지만, 예비전력 예산은 0.4%에 머물러 있다.

병력자원의 감소를 초급간부와 군무원으로 충원하고 있지만, 인구절벽이 심해질수록 초급간부의 정족수 충원은 어려워진다. 군무원의 경우 전쟁법상 교전권이 없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줄어든 병력자원의 대체병력으로 보기도 힘들다.

눈 앞의 일자리 창출과 취업률 상승이라는 결과를 달성하는 수단이지 않겠냐는 비난 여론에 대한 현 정부 당국의 구체적인 해명도 아직까지 나온 적이 없는 상황이다. 징병들은 식사와 개인전투장비에 대한 불만과 무기체계를 중심으로 한 플랫폼 늘리는 줄어들지 않은 상황이다.

/문형철 기자 captinm@metroseoul.co.kr

###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 與, 윤석열 기자회견에 “국민을 억박 지르고 있다” /사진 뉴시스
- ▲ 퇴직공직자 100여명 유관기업 ‘재취업’...공직자윤리 실종

- ▲ 설훈, 의원 사퇴 의사...캠프와 당 지도부 만류에 고심
- ▲ ‘탄도미사일 대신 예비군’ 北 열병식, 노농적위군 중십



- ▲ ‘배수진’ 이낙연, ‘이재명·윤석열=불안한 후보’ 공세 /사진 뉴시스
- ▲ 洪 “수술실 CCTV 반대...의료과실 입증책임 의사에”